

지상진료실

하악 제2유구치의 편측 치아절제술을
이용한 간격유지장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 교실
이재호·이종갑

심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유구치의 치근단 농양과 치조골 소실, 이와 동반된 치아동요도가 심한경우 근관 치료및 수복이 불가능하여 유구치를 발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1대구치는 제2 유구치의 원심면을 따라 맹출하게 되나 제2 유구치를 조기 발거하였을 경우 제1 대구치의 근심맹출경향으로 인하여 제1대구치의 경사, 간격소실및 제2 소구치의 매복을 초래할 수 있다.

제2 유구치를 조기발거하게 되었을 경우 제1 대구치의 맹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distal shoe 형태의 간격유지장치의 기술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아 왔으나 이러한 형태의 간격유지장치는 정확한 위치에 장착시키기가 어려워 수회 다시 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하악 제2 유구치의 치근단 농양과 치조골 소실이 근심치근에 국한되어 있고 원심치관과 치근이 비교적 건전한 경우 제2 유구치를 발거하는 대신 유치의 편측 치아절제술을 이용하여 근심 치관과 치근만을 제거하고 원심 치관과 치근은 간격유지장치의 한부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한다.

적응증

하악 제2 유구치의 심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근관치료 및 수복이 불가능하여 치아를

발거하고 distal shoe 형태의 간격유지장치시술을 계획한 경우에 있어서 치조골 농양과 치조골 소실이 근심 치관에만 국한되어있고 원심치관과 치근이 비교적 건전한 경우.

술식

- 1)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악 제2 유구치의 근관치료및 근관충전 시행(Fig.2)
- 2) Amalgam 수복
- 3) 근심치관과 치근을 제거(Fig.3, 4)
- 4) 하악 제2 유구치의 원심치관에 crown preparation 시행
- 5) 인상채득
- 6) 제1 유구치의 치수치료시는 3 unit bridge 형태의 간격유지장치를 casting을 제작(Fig.5, 6).
- 7) 제1 유구치가 건전한 경우는 crown and loop 형태의 간격유지장치를 제작(Fig. 7, 8).

장점

Distal shoe 형태의 간격유지장치에 비해 기술상의 실패가 적고 제1 대구치의 guide 역할을 정확히 해줄수 있으며 3 unit bridge 형태의 간격유지장치설계시 저작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가능.

주의점

- 1) 정확한 case selection
- 2) 치아절제시 dentino-

cemental junction부위에
돌출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3) 잔존치근에 과도한 교합력

- 이 가해지지않도록 장치설
계
- 4) 시술부위의 구강위생상태
유지



Fig. 1 초진시 상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근단 농양과 근심치근부의 치조골소실을 보임.



Fig. 3, 4 하악 제 2 유구치 근심치관과 치근을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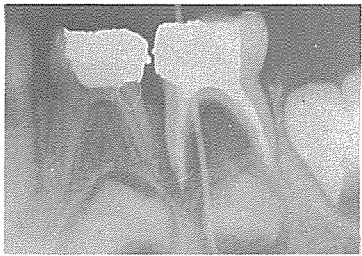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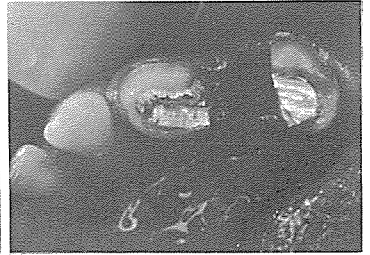


Fig. 2 하악 제 1 유구치에 pulpotomy, 하악 제 2 유구치에 pulpectomy시행. (하악 제 2 유구치 근심부의 심한 치조골 소실을 관찰할 수 있음)



Fig. 5, 6 3 unit bridge형태의 space maintainer를 casting하여 제작.



Fig. 7, 8 하악 제 1 유구치가 건전한 경우는 crown and loop형태의 space maintainer를 제작.